

익산시, 귀농·귀촌 정책 강화 '인구 늘리기'

빈집 임대료·주택 수리비 등 안정적인 정착 적극 지원 저온창고·농기계 구입비 외 최대 3억까지 창업비용도

익산시가 농촌 활력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인구 유입정책에 적극 나선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과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귀농 초기 영농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촌의 빈집 임대료와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인에게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농촌 빈집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23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기주택 수리비도 만 70세 이하 귀농인을 대상으로 주택 1곳당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 초기 필요한 저온창고와 농기계, 농기자재 구입비용을 1개 경영체 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 초기 정착 비용의 일환으로 1년 동안 월 40만원의 농업장려수당도 지급한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만 40세 미만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기반 시설비용을 지원하며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이나 40세 미만 청년이다.

이 밖에도 농업분야 창업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연2%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이나 예정자를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익산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역 농업발전과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명 기자 yjy@



남원시 금동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한춤을 연습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고죽동 남원농협 내에 90억 들여 2020년 완공

남원시는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원시는 인구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인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지을 계획이다.

사업비 90억 역원을 들여 부지 3400㎡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복지관 부지는 접근성과 지역 균형성을 고려해 고죽동 남원농협 통합경제산업단지 안으로 선정하고 남원농협과 건축부지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5월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간 구성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기존 노인복지관과의 협력 등도 검토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선유도 등 전북지역 해수욕장 개장 잇따라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등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전북 지역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개장한 선유도해수욕장은 '신선이 노닐던 곳'이라는 뜻을 가진 선유도에 있

는 해수욕장으로 넓은 모래사장과 아름다운 해안 절경으로 유명하다.

2년 전 섬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돼 차를 타고 해수욕장으로 직행할 수 있다.

앞으로 고창 구시포·동호해수욕장은 7

월 12일, 부안 변산·고사포·격포·모항·위도 해수욕장이 7월 13일에 각각 개장할 계획이다.

이들 해수욕장은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전북도는 피서객과 물놀이 안전을 위해 민간자원봉사자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고정 배치한다.

구조대는 피서객 보호, 익수자 인명 구조, 환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미야 찾기 등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한다.

마재윤 전북도 소방본부장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지정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민희망연대' 창립총회...활동 시작

정읍 지역 시민단체 '정읍시민희망연대(대표 하남기)'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정읍시민희망연대는 지난 25일 정읍시 북면 정읍한우 2층에서 희망찬 정읍을 만들고 실천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창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 및 발대식에는 30명의 정회원과 종교계와 법조계 등 4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해 총회 정관을 승인하고 하남기 대표를 비롯해 임원(감사 2인, 사무국장 1인, 4개 분과위원장)과 당연직포함 11명 운영위원을 선출했다.<사진>

하남기 대표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정읍시정과 의정활동사항을 연중 모니터링하고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정읍발전의 비전을 모색하는데 협력해 나가자"며 "정읍희망연대는 실천적인 주민참여활동을 이끌어 내어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으로 참석한 대우크스님(전 불교방송국 사장, 현 대한불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시민의 눈을 일깨워 후손에게 물려줄 희망찬 정읍을 위한 정의롭고 건전한 민주적인 시민단체가 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밀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사랑상품권' 8월부터 판매 돌입

군, 지역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순창군은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순창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업무에 관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와 순정축협, 전북은행 순창지점, 순창군산림조합, 순창농협, 서순창농협, 동계농협, 구림농협, 순창새마을금고, 쌍치새마을금고, 순창신협, 동계신협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순창군의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유기증권인 순창사랑 상품권(1만원권)은 총 10억원 규모로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대행을 맡은 금융기관들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정산과 유통한 상품권의 회수·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품권은 NH농협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의 21개 지점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7%, 특별할인기간(설·추석 명절)에는 10%까지 할인된다.

전통시장은 물론 관내 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학원, 의료 소매점, 주유소, 이·미용업소, 약국, 의원 등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신창동, 가도빌딩, 근린상가 매매/임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매매 - 8억 8천만원
- 임대 - 보1억원에 월400만원

문의. 010-6834-7400